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생활시간 사용 양태 및  
시간부족감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전 지 현

#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생활시간 사용 양태 및 시간부족감

지도교수 진 미 정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전 지 현

전지현의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위	원	장	한 경혜	(한)
부	위	원	장	장
위		원	진 미 정	(진)

## 국문초록

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유한성과 비가역성이다. 하루는 24시간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나간 어제를 오늘로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은 매일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누구보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일하는 기혼여성이다.

일하는 기혼여성은 오래 전부터 생활시간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그들은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며, 자신의 하루를 다양한 활동으로 쉴 틈 없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하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검토해보면, 그동안 임금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자영업주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며,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에서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모 334명의 668개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고 독립표본 t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비교해본 결과, 평일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주는 일하는 시간이 짧고 가정 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길었다. 반면에 주말에 일하는 비율은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높았다.

둘째,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가 시간부족감을 더 많이 느꼈다. 이것은 자영업이라는 근무방식이 일-가족 양립에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였다.

셋째,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감은 증가하였고, 정기휴일이 없는 경우는 정기휴일이 있는 경우보다 시간부족감이 높았다. 그런데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시간부족감에 대한 종사상 지위(자영업주)의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해진 휴일 없이 일하는 자영업만의 근무특성이 종사상 지위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정해진 휴일이 없거나 주말에도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보육서비스를 심야나 주말 등 틈새 시간대에도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직종이나 업종,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고,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객관적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인 시간부족감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취업모의 직업적 특성이 시간 사용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종사상 지위, 자영업주, 생활시간, 시간부족감,  
일-가족 양립

**학 번 :** 2012-23562

# 목 차

I . 문제제기 .....	1
II . 선행연구 고찰 .....	6
1.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특성 .....	6
2.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 관련 생활시간 연구 동향 .....	10
3. 취업모가 느끼는 시간부족감 .....	14
(1) 시간부족감의 개념 .....	14
(2)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7
III .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9
1. 연구문제 .....	19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	20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	21
(1) 생활시간 .....	21
(2) 시간부족감 .....	22
(3) 종사상 지위 .....	22
(4) 정기휴일 유무 .....	22
(5) 통제변수 .....	23
4. 분석방법 .....	24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5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	25
2.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생활시간 사용 양태 .....	28
(1)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평일 생활시간 사용 양태 .....	28
(2)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주말 생활시간 사용 양태 .....	31
3.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	33
4.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	35
V. 결론 및 논의 .....	37
참 고 문 헌 .....	42
Abstract .....	56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	27
[표 2] 종사상 지위별 평일 시간 사용 .....	30
[표 3] 종사상 지위별 주말 시간 사용 .....	32
[표 4]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	34

## 부 록 목 차

[부록 1] 2009년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	50
-------------------------------	----



## I.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며,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직업적 특성이 개인의 생활시간 사용과 그에 대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시간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제한된 시간을 어떤 활동으로 채울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 사용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이것은 곧 개인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유소이, 최윤지, 2002).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가족의 생활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생활과학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학, 사회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하는 기혼여성은 생활시간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그들은 어머니로서 가정생활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직장생활까지 병행하며, 누구보다도 자신의 하루를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영역에서 요구되는 이중 부담 때문에 일하는 기혼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남수정, 유현정, 2006).

취업 중인 기혼여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생활시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선행연구는 대부분 성별 차이(조희금, 1997; 김정석, 2005; 은기수, 2009; 김주희, 2012)에 주목하거나 취업모와 비취업모

의 집단 간 차이(두경자, 1995; 이영환, 이수재, 2007)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일하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검토해보면, 그동안 임금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자영업주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아, 취업자 집단 내부의 다양성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을 기혼남성과 대비하여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부부가 모두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기혼여성의 일, 가정 관리 및 가족 돌봄, 여가시간 등을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과 상대적인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그런데 임금근로자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하거나(조희금, 1997; 이승미, 이현아, 2011), 임금근로자가 아닌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더라도 연구대상자의 직업이나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별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한 경우(문숙재, 윤소영, 2003; 허수연, 2008)가 많았다.

취업 여부에 따른 여성의 생활시간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 시간량을 비교하거나 여가시간을 분석하였다(문숙재, 김혜연, 1995; 이영환 외, 2007). 그런데 취업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하다 보니, 취업모를 비취업모와 구분되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하여 취업모 집단 내부의 차이를 다소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취업모 집단 내부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취업모를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 1994; 이승미 외, 2011), 임금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기혼여성은 그동안의 생활시간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소외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특정 기업체에 소속되어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주는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상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직된 근로시간을 지키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영업주의 경우, 일이나 가족 돌봄 등 각각의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가정 생활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실제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녀 돌봄을 위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능성이 낮아, 외부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차성란, 2006). 또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자영업 진출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영업으로 진출할 확률이 높아, 자영업만의 자발적인 근무방식이 일-가족 양립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들에게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황희숙, 김윤재, 박정우,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종사상 지위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문제로 삼았다. 특히 일과 가정생활에 사용된 시간을 토대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일-가족 양립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의 연구대상은 일하는 기혼여성 중에서도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생활시간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영업주의 일상생활을 파악한다면, 임금근로자 위주로 구성된 현재의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나 보육정책 등의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의를 하면서,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주로 기혼여성들이 효과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Carr, 1996; Moen, & Roehling, 2005)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주가 오히려 임금근로자에 비해 시간 활용이나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여서 사람들이 생계형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이정의, 정형옥, 이사라, 2012). 또한,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를 분석한 이삼식(2013)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들의 출산 수준은 전체 취업 여성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 데다, 자녀 양육에서의 애로 사항으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아, 자영업이라는 직업적 특성의 장점이 실제 자녀 출산이나 양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효과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수 있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의 출산이나 양육 행태 상에서는 임금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주들은 실제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로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시간부족감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부족감이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박은정, 이성림, 2013). 일하는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최근 시간부족감이 일-가족 균형의 차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차승은, 2011), 시간부족감을 통해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수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어떠한 특성이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다 수월한 일-가족 양립을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기도 하는 기혼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종사상 지위별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의 차이와 더불어, 자영업 종사자들은 정해진 휴일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휴일 유무 역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주된 차이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세 번째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종사상 지위별 시간부족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도 밝혀보고자 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동안의 생활시간 연구는 기혼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조명되지는 못하였다. 비록 생활과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을 연구하였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과 가족생활에서 취업모의 이중 부담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취업모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임금근로자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껏 별로 조명되지 않았던 기혼여성 자영업주를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취업모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와 시간 부족감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취업모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가 시작된 이래 10여 년간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양적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차승은, 2010). 그러나 시간 압박, 시간부족감과 같은 주관적인 시간 사용 인식은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복지감이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Roxburgh, 2004; Zuzanek, 2004),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취업모의 객관적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상태인 시간부족감을 함께 살펴본다면, 취업모의 직업적 특성이 시간 사용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특성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6년 천만 명에 이른 뒤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10,802,000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2014)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51.9%며, 연령별로는 40대가 67.5%로 가장 높고 20대(64.3%)와 50대(63.0%)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58.4%여서, 취업 여성의 비율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30대 때 감소하였다가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일컫는, 소위 ‘경단녀’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는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의 제도를 통해 취업모의 시간적 융통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정도는 직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특히 경쟁 구도가 심한 민간 기업의 경우 제도 자체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다(진미정, 성미애,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은 가사노동이나 가족 돌봄의 역할이 큰 기혼여성에게 효과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한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 Moen과 Roehling(2005)은, 일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재량권이 크기 때문이다(성지미, 안주엽, 2003; 최문경, 구혜란,

2008). 또한 Carr(1996)은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자영업이 전산업사회적 생산양식임에도 불구하고 후기산업사회에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참여가 활발한 현상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McManus(2001) 역시 여성들이 자영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여성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74.7%가 임금근로자에 해당하였으며 15.2%가 자영업주에 해당하였다(통계청, 2014). 이때 임금근로자란 국가, 공공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자영업주는 유급 종업원을 1인 이상 두거나 혼자서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통계청 홈페이지). 이처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는 특성이 매우 다른 집단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도 낮게 나타났다(성지미, 2002; 최문경 외, 2008; 조동훈, 2013).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다. 2011년을 기준으로 남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 약 15.8%였으나, 우리나라는 28.2%로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OECD,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금재호, 조준모, 2000; 문유경, 2002; 성지미, 2002; 전병유, 2003; 황희숙 외, 2012; 조동훈, 2013).

자영업주의 특성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함으로써 자영업 결정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데에는 연령

및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미취학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배우자의 고용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가족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유경, 2002; 황희숙 외, 2012; 조동훈, 2013). 이때 기혼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바로 미취학 자녀 유무이다. 황희숙 외(2012)의 연구를 보면,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기혼여성은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앞서 살펴본 국외 선행연구의 논리와 같이, 어린 자녀 때문에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종사상 지위의 결정요인으로 가족특성이 주로 고려되는 만큼, 기혼여성 자영업주의 경우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모습의 일-가족 양립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경우 자영업주가 오히려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정의 외, 2012). 우리나라 자영업주들은 생계형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영세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살펴 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밤 10~12시에 일을 종료하는 경우가 전체 연구대상자의 24.7%이고 심지어 새벽 0~7시에 일을 끝낸 경우도 5%로 나타났다(박종서, 이상영, 이삼식, 손창균, 신현웅, 정홍원, 박수지, 신화연, 김지연, 윤여원, 이소정, 홍인정, 2012). 김영선, 옥선화(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기업 종사자들은 현저히 긴 시간동안 근무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 항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60.3%, 일요일에 항상 일한다는 응답도 32.3%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한다. 취업 중인 기혼여성 중에서도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일-가족 양립 양상을 생활시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 관련 생활시간 연구 동향

생활시간 자료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언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시간 자료는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사상 지위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교육, 보건, 가족생활, 사회적 교제생활, 여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손애리, 2000).

국내의 초창기 생활시간 자료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농가 주부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농민생활시간조사’, 대중매체 이용실태 및 여가생활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방송공사에 의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국민생활시간조사’ 등이 있다. 그 이후 전국 규모의 생활시간 자료를 축적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마침내 통계청에서 1999년에 국내 최초로 전국 규모의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생활시간 자료가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국내의 생활시간 연구는 생활과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활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분석해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조영희, 2004; 남수정 외, 2006; 손문금, 2010; 송유진, 2011). 또한, 최근에는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근거로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거나 시간 배분을 유형화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김외숙, 2012; 김주희, 2012; 박은정 외, 2013). 이때 주로 다루어진 연구 대상은 바로 일하는 기혼여성이다. 일하는 기혼여성은 기존의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병행하게 되면서 해야 할 일은 많아졌지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보

다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취업 집단으로 볼 수 있다(Fox, & Nickols, 1983). 기혼의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연구는 대부분 기혼남성과 비교하거나(허경옥, 1994; 조희금, 1997; 김정석, 2005; 은기수, 2009; 김주희, 2012) 전업 주부와 비교(두경자, 1995; 이영환 외, 2007)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하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기혼남성과 비교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주로 일, 가정 관리 및 가족 돌봄, 여가 등에 사용하는 시간량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허경옥, 1994; 채로, 이기영,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하게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 여전히 성별분업 구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연구에서는, 취업 주부와 전업 주부의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 시간량을 비교하거나 여가시간을 분석하였다(문숙재 외, 1995; 이영환 외, 2007). 취업 주부와 전업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비교해보면, 가사노동이나 가족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취업 주부가 전업 주부에 비해서는 짧지만, 총 노동시간의 경우 취업 주부가 전업 주부보다 훨씬 더 길었고 주말에는 그 차이가 더 증가하였다(이영환 외, 2007). 따라서 기혼남성과 비교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취업 주부는 전업 주부와 대조해보더라도 생활시간의 상당 부분을 가족생활에 사용하고 있어 일과 가정영역에서의 이중 부담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모 집단 내부의 다양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취업모의 직업이나 종사상 지위를 고려하지 않거나, 취업모 중에서도 임금근로자 위주로 생활시간 연구가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모 중에서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관심은 상

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조희금(1997)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과 그의 배우자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였다. 평일과 주말의 개인유지 활동,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량과 시간대별 분포를 파악하였고, 이러한 생활시간 사용 양태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희금(1997)의 연구에서는 사무직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외의 직종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이승미 외(2011)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남성은 일과 여가를 중심으로 한 시간 배분 구조, 여성은 일과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 시간 배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승미 외(2011)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 구조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남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직업특성으로서 전일제 근무 여부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전일제 근무를 할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길고,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나 여가시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역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모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다.

김효정(2004)의 연구에서는 가사일과 소득 창출 활동을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재택근무자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기혼여성 중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 실태와 그러한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재택근무자는 직장근무자와 달리 요일에 관계없이 비슷한 시간동안 가사노동을 하고 있어, 재택근무자는 오히려 일과 가정영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역할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효정(2004)은 재택근무자를 주된 업무를 자택에서 하면서 소득을 얻는 자로 정의하였고, 이에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등 다양한 성격의 근로자가 포함되어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일하는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분석하되, 연구대상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로 나누어 비교해보고자 한다.

### 3. 취업모가 느끼는 시간부족감

#### (1) 시간부족감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객관적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상태인 시간부족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모라도 어떤 지위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각자의 생활시간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 일과 가정영역에 시간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간부족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계획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4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매일 바쁘게 생활한다. 노혜진, 김교성(2010)은 성별, 계급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시간 빈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소득 빈곤과 유사한 의미로 시간 빈곤(time poor) 혹은 시간 결핍(time deficit) 등의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자원으로서 시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

시간부족감(time crunch)과 유사한 용어로는 시간 빈곤(time poor, time famine), 시간 압박(time pressure), 시간 결핍(time deficit), 시간 압착(time squeeze), 시간 스트레스(time stress) 등이 있으나, 각각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Szollos, 2009). 몇몇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시간부족감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한다. Szollos(2009)는 시간부족감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

동을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time shortage)’이라는 인지적 측면과 ‘시간의 속도와 관련된 느낌(being rushed)’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전자의 경우 시간 배분 혹은 시간 관리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이다. Szollos(2009)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 모두 ‘바쁘다’는 정서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김외숙, 2012)”로 정의하고 있다. 손문금(2004)의 연구에서도 시간부족감을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라고 보았고, 박지영(2013) 역시 시간부족감을 “자원으로서의 시간이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 대비 부족하다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쓸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부족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에 시간 분배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Daly, 1996). 또한, 빈곤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Drewnowski, 1976; 노혜진 외, 2010에서 재인용)라고 본 노혜진 외(2010)는 시간 빈곤의 개념을 “시장 및 비(非)시장에서의 노동량이 과부담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 할당에 대한 통제 수준이 낮고, 여가 혹은 활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생활시간 연구처럼 시간부족감에 대한 실증 연구 역시 대부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생활과학 분야에서는 소비자학 연구자들이 기혼여성의 시간 제약이나 시간부족감을 연구하였고, 주로 시간부족감이 기혼여성의 소비자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비자의 시간 제약에 따른 전반적인 구매 행동양식을 살펴 보거나 시간 절약을 돕는 상품, 서비스 요구와 구매 행동에 대해 시간부족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박영미, 김기옥, 1994; 정순희, 김현정, 2002; 김칠순, 이진화, 2006). 이 밖에도 일찍이 기혼여성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시간 부족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승미 외, 1990).

최근에는 시간부족감이라는 개념이 일-가족 균형의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차승은, 2011). 과거에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의해 주로 여성이 가정영역을 담당하였으나, 여성 역시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서 가정 관리나 가족 돌봄에 사용하던 시간을 유급노동에도 사용하게 되어 시간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Fox & Nickols, 1983). 즉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시간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24시간 내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 때문이며, 일과 가정영역에서 겪는 역할 갈등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시간 및 시간부족감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일-가족 혹은 일-생활 균형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Schor, 1991, Szollos, 2009에서 재인용).

그런데 국내에서는 시간부족감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 연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생활과학 분야에서 일찍이 시간부족감을 연구하였다고는 하나, 소비자 행동 등 특정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고 기혼여성의 개인 특성이나 취업 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을 분석한 연구도 소수에 그친다. 최근에 와서야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일-가족 균형에 관한 논의로 연결되면서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차승은, 2010; 차승은, 2011; 박은정 외, 2013). 국외에서도 시간부족감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축적된 편은 아니지만,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시간부족감이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데다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밝혀져(Teuchmann, Totterdell, & Parker, 1999; Beaujot, & Andersen, 2007), 앞으로 시간부족감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시간부족감의 용어를 사용하고 시간부족감을 “개인이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가족 균형의 관점에서



임금근로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업모 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적 제약을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 (2)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요인들을 크게 가족특성과 직업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으로는 배우자의 취업 여부, 무급 노동시간, 막내 자녀 연령, 미취학 자녀 유무 등이 있다. 기혼여성들은 가정 관리나 자녀 돌봄 등 무급 노동시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시간부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막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사람들의 시간부족감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lkie, Mattingly, Nomaguchi, Bianchi, & Robinson, 2004).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간 부족을 더 많이 느꼈다. 김철순 외(2006)의 연구를 비롯한 소비자학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별 시간부족감을 분석한 결과,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시간부족감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차승은(2010)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뿐만 아니라, 자녀가 모두 초등학교 이상인 집단의 시간 압박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특성으로는 취업 여부, 노동시간,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유급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기혼여성은 시간 부족을 높게 인식하였다(Beaujot, & Andersen, 2007; Lippe, 2007).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시간제 임금근로자보다 시간 빈곤<sup>1)</sup>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외, 2010). 맞벌이 부부의 시간 부족 인식을 분석한 손문금(2004)은 여러 가지 개인특성, 가족특성, 직업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기혼남녀의 시간 부족 인식에 대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무급가족종사자보다 자영업주는 1.4배, 임금근로자는 1.2배만큼 시간 부족 인식이 높았다. 즉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주의 시간 부족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독립변수 중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파악하였을 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어떠한 차이점에 의해 시간부족감이 다르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일하는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시간 부족 현상에 주목하고, 가족특성, 직업특성 등의 다양한 독립변수가 시간부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라는 직업적 특성이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어떠한 차이점이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가족 양립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두 번의 분석단계를 거치고자 한다. 1차 분석단계에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차 분석단계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로부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차이점으로 파악한,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로써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어떠한 특성으로 인해 종사상 지위별 시간부족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볼 것이다.

---

1) 노혜진 외(2010)는 시간빈곤을 활용 가능한 시간이 실제 임금노동시간보다 적은 경우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시간빈곤은 앞서 정의한, 시간부족감과 동의어로서의 시간빈곤과 다르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모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행위자 비율과 시간량)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취업모의 평일 생활시간 사용 양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취업모의 주말 생활시간 사용 양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는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는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 복지, 교통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문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통계청, 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전국 약 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1,000명의 40,526일의 시간일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취업모로서,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임금근로자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로 나누어지는데,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임금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일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특성과 달라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일정한 보수 없이 동일 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으로(통계청 홈페이지), 혼자서 혹은 유급 종업원과 함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영업주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그 수가 적어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34명의 668개의 시간일지만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단위는 일(日)이다.

###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 (1) 생활시간

취업모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행동 시간량과 행위자 비율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주행동, 부행동, 동시행동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행동 시간량만을 분석하였다. 주행동은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한 가지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을 의미하며,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그때 가장 길게 한 행동이나 응답자가 주된 행동이라고 판단한 행동을 주행동이라 한다(통계청, 2009). 행위자 비율은 연구대상자 중 하루 24시간 동안 1분 이상 특정 행동을 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는 9개 대분류와 50개 중분류, 144개의 소분류 코드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분류하였다. 9개 대분류는 (1) 개인유지, (2) 일, (3) 학습, (4) 가정 관리, (5) 가족 보살피기, (6) 참여 및 봉사활동, (7) 교제 및 여가활동, (8) 이동, (9)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에 초점을 맞춰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일, 일 관련 이동, 가정 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을 분석할 것이다.

## (2) 시간부족감

본 연구에서는 시간부족감을 측정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의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바쁘지 않다(1점)’부터 ‘항상 바쁘다(4점)’에 이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종사상 지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종사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하였다.

## (4) 정기휴일 유무

취업모의 정기휴일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의 “정기적으로 쉬는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격주 휴무”, “일주일에 이틀”, “매 2주에 하루만”,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쉼”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쉼”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기휴일 유무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 (5) 통제변수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령, 월평균 개인소득,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 조사 요일이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연령과 월평균 개인소득은 연속 변수의 형태로 분석하였고, 교육수준과 미취학 자녀수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의 두 집단, 미취학 자녀 1명과 2명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서도 시간부족감을 다르게 느낀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어(Daly, 1996), 응답자들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요일이 평일인지 주말인지의 여부도 더미변수의 형태로 통제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기존의 패널자료를 분석자료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2014년 7월 28일에 심의 면제를 승인받았다.<sup>2)</sup>

---

2) IRB 심의 면제 승인번호: E1407/002-010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이 있고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며, 총 334명의 668개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34.08세(표준편차 4.5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종사상 지위별로 비교한 결과, 20대에는 자영업주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30대와 40대에서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기혼여성 자영업주의 평균 연령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많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홍성희, 2000).

교육수준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모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임금근로자의 66.3%와 자영업주의 65.6%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에서도 종사상 지위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더 높은 대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영업 결정요인을 비교한 조동훈(2013)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남성이나 여성 모두 종사상 지위별 학력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남녀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았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교육년수의 차이가 남성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 국내 여성 자영업주의 인적 자본이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월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7.5%), 200만원 이상(33.7%), 100만원 미만(18.8%) 순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주는 100만원 미만(46.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8.0%), 200만원 이상(15.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개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영업주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영업주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국내 여성 자영업주의 산업별 분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여성 경영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3.12%), 도매 및 소매업(21.53%), 교육 서비스업(10.48%)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률이 낮은 개인 사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2).

마지막으로 미취학 자녀수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모두 미취학 자녀가 1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75.0%와 자영업주의 79.3%가 이에 해당하였다. 미취학 자녀수에 대해서는 종사상 지위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N=668)		임금근로자 (N=552)		자영업주 (N=116)		X <sup>2</sup>
연령	20대	96	(14.4)	88	(15.9)	8	(6.9)	31.16***
	30대	502	(75.1)	422	(76.4)	80	(69.0)	
	40대	70	(10.5)	42	(7.6)	28	(24.1)	
	평균	34.08	(4.52)	33.71	(4.22)	35.36	(4.37)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26	(33.8)	186	(33.7)	40	(34.4)	12.49*
	전문대졸 이상	442	(66.2)	366	(66.3)	76	(65.6)	
월평균 개인 소득	100만원 미만	158	(23.7)	104	(18.8)	52	(46.5)	105.9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6	(45.8)	262	(47.5)	44	(38.0)	
	200만원 이상	204	(30.5)	186	(33.7)	18	(15.5)	
미취학 자녀수	1명	506	(75.7)	414	(75.0)	92	(79.3)	0.97
	2명 이상	162	(24.3)	138	(25.0)	24	(20.7)	

\*p<0.05 \*\*p<0.01 \*\*\*p<0.001

## 2.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생활시간 사용 양태

### (1)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평일 생활시간 사용 양태

다음의 [표 2]는 평일 생활시간에 대해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고용된 일 및 자영업), 일 관련 이동(출·퇴근,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가정 관리(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 경영),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에 참여한 행위자 비율과 소요된 평균 시간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고용된 일 및 자영업),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가정 관리(음식 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가족 보살피기와 관련된 시간 사용에 있어서 종사상 지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평일에 일하는 시간을 보면, 연구대상자의 92.8%가 평균 6시간 45분 동안 일하였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의 93.6%가 평균 7시간 동안, 그리고 자영업주의 89.7%가 5시간 40분 동안 일하였다. 따라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주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의 하위 항목인 고용된 일과 자영업과 관련된 시간 사용 역시 이러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 관련 이동 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 관련 이동과 그 하위 항목인 출·퇴근 시간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과 관련된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 종사상 지위별 차이가 있었다. 자영업주의 39.7%가 1시간 16분 동안,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30.3%가 35분 간

출·퇴근을 제외한 일 관련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외 업무와 관련된 이동시간에서 종사상 지위별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아마도 자영업주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등의 활동 때문일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가정 관리의 경우 전체의 94.6%가 1시간 52분을 사용하였고, 임금근로자의 93.6%가 1시간 47분 동안, 그리고 자영업주가 98.7%가 2시간 13분 동안 가정 관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는 시간과 달리 가정 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길었다. 가정 관리의 하위 항목 중 음식 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와 관련된 시간 사용에서도 종사상 지위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식 준비 및 정리와 청소 및 정리 모두 자영업주가 더 오랜 시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류 관리, 집 관리, 가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이나 가정 경영에 사용하는 시간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 보살피기와 관련된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종사상 지위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족 보살피기의 하위 항목인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와 배우자 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차이가 없었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기혼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짧은 대신, 가정 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즉 앞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영업만의 근무방식이 취업모로 하여금 일보다 가족생활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종사상 지위별 평일 시간 사용

활동	전체 (N=405)		임금근로자 (N=327)		자영업주 (N=78)		t-value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시간:분)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시간:분)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시간:분)	
<b>일</b>	<b>92.8</b>	<b>6:45</b>	<b>93.6</b>	<b>7:00</b>	<b>89.7</b>	<b>5:40</b>	<b>4.08***</b>
고용된 일 및 자영업	92.8	6:45	93.6	7:00	89.7	5:38	4.15***
<b>일 관련 이동</b>	<b>98.5</b>	<b>1:39</b>	<b>99.1</b>	<b>1:36</b>	<b>100.0</b>	<b>1:53</b>	<b>-1.68</b>
출·퇴근	89.1	0:59	93.0	1:00	73.1	0:58	0.32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32.1	0:45	30.3	0:35	39.7	1:16	-2.82**
<b>가정 관리</b>	<b>94.6</b>	<b>1:52</b>	<b>93.6</b>	<b>1:47</b>	<b>98.7</b>	<b>2:13</b>	<b>-2.44*</b>
음식 준비 및 정리	89.6	1:10	89.3	1:07	91.0	1:24	-2.58*
의류 관리	37.0	0:30	37.9	0:30	33.3	0:32	-0.53
청소 및 정리	63.0	0:34	60.2	0:31	74.4	0:41	-2.54*
집 관리	7.4	0:17	6.4	0:14	11.5	0:23	-1.80
가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	23.5	0:32	24.2	0:32	20.5	0:33	-0.26
가정 경영	9.9	0:20	7.3	0:20	20.5	0:20	0.00
<b>가족 보살피기</b>	<b>96.3</b>	<b>1:50</b>	<b>96.0</b>	<b>1:46</b>	<b>97.4</b>	<b>2:06</b>	<b>-2.02*</b>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94.8	1:31	94.2	1:30	97.4	1:37	-0.71
배우자 보살피기	12.1	0:16	11.0	0:17	16.7	0:12	1.84

\*p<0.05 \*\*p<0.01 \*\*\*p<0.001

## (2)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주말 생활시간 사용 양태

다음의 [표 3]은 주말 생활시간에 대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이다. 평일 생활시간의 분석과 동일하게 주말에 일(고용된 일 및 자영업), 일 관련 이동(출·퇴근,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가정 관리(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 경영),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에 해당하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을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떠한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임금근로자의 28.9%가 주말에 근무하는 반면 자영업주의 경우 52.6%가 일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주말에 일하는 행위자 비율에 대해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8.38$ ,  $p<0.001$ ). 이러한 차이는 국내 자영업주나 가족기업 종사자는 정해진 휴일이 없거나 주말에 일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하였다(이종희, 이연숙, 2002; 김영선 외, 2005). 또한, 기혼여성 자영업주의 근로시간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홍성희, 2000; 김우영, 김응규, 2001)는 자영업주의 주말 근로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 종사상 지위별 주말 시간 사용

활동	전체 (N=263)		임금근로자 (N=225)		자영업주 (N=38)		t-value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시간:분)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시간:분)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시간:분)	
<b>일</b>	<b>32.3</b>	<b>4:50</b>	<b>28.9</b>	<b>4:57</b>	<b>52.6</b>	<b>4:30</b>	<b>0.68</b>
고용된 일 및 자영업	32.3	4:50	28.9	4:57	52.6	4:29	0.70
<b>일 관련 이동</b>	<b>91.3</b>	<b>1:19</b>	<b>91.1</b>	<b>1:19</b>	<b>92.1</b>	<b>1:18</b>	<b>0.15</b>
출·퇴근	24.7	1:02	24.4	1:03	26.3	0:58	0.39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4.2	1:03	2.2	0:40	15.8	1:22	-1.03
<b>가정 관리</b>	<b>97.7</b>	<b>3:07</b>	<b>97.3</b>	<b>3:11</b>	<b>100.0</b>	<b>2:45</b>	<b>1.54</b>
음식준비 및 정리	94.3	1:43	94.2	1:45	94.7	1:30	1.32
의류 관리	52.9	0:37	52.9	0:37	52.6	0:32	1.31
청소 및 정리	74.1	0:48	73.3	0:49	78.9	0:42	1.21
집 관리	9.1	0:23	10.7	0:23	0.0	0:00	-
가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	50.2	0:57	51.6	0:55	42.1	1:10	-1.47
가정경영	4.9	0:18	5.3	0:19	2.6	0:10	0.61
<b>가족 보살피기</b>	<b>97.3</b>	<b>2:28</b>	<b>97.8</b>	<b>2:27</b>	<b>94.7</b>	<b>2:26</b>	<b>-0.44</b>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94.7	2:15	94.7	2:16	94.7	2:12	0.16
배우자 보살피기	16.3	0:19	16.4	0:18	15.8	0:22	-0.64

\*p<0.05 \*\*p<0.01 \*\*\*p<0.001



### 3.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4]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 1]을 보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5.39$ ,  $p<0.001$ ) 수정된  $R^2$ 은 0.04로 자료 전체의 산포 중에서 약 4%가 회귀함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리고 상수,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 종사상 지위(자영업주)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일 때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시간부족감 수준이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더 느낀다는 국외의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Matingly, & Sayer, 2006).

미취학 자녀수가 1명인 사람보다 2명 이상인 사람은 시간부족감을 오히려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으나, 미취학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수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경우 자녀 돌봄 조력자가 존재하여,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종사상 지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가 더 높은 수준의 시간부족감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영업주의 특징은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자율성이라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Parasuraman, & Simmers, 2001; 문유경, 2002)와 달리,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보다 시간 제약의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월평균 개인소득과 조사요일은 시간부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S.E.)		b(S.E.)	
상수	2.97	(0.19)***	2.71	(0.20)***
연령	0.01	(0.01)*	0.01	(0.01)
교육수준(전문대졸 이상) <sup>1)</sup>	0.14	(0.05)**	0.18	(0.05)***
월평균 개인소득	0.02	(0.01)	0.02	(0.01)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 <sup>2)</sup>	-0.13	(0.05)*	-0.11	(0.05)*
조사요일(주말) <sup>3)</sup>	-0.01	(0.05)	0.18	(0.06)**
종사상 지위(자영업주) <sup>4)</sup>	0.16	(0.06)*	0.10	(0.06)
일 관련 시간			0.04	(0.01)***
가정 관리 관련 시간			0.01	(0.02)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			0.01	(0.02)
정기휴일 유무(없음) <sup>5)</sup>			0.25	(0.09)**
F	5.39***		6.71***	
수정된 R <sup>2</sup>	0.04		0.08	
R <sup>2</sup> 변화량	0.05		0.05	

\*p<0.05 \*\*p<0.01 \*\*\*p<0.001

※ 준거집단: 1) 고졸 이하 2) 미취학 자녀 1명 3) 평일

4) 전일제 임금근로자 5) 정기휴일 있음

#### 4.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제시한 [표 4]의 [모형 2]는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로서,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것이다. [모형 2]를 보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6.71$ ,  $p<0.001$ ), 수정된  $R^2$ 은 0.08로 자료 전체의 산포 중에서 약 8%가 회귀함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즉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0.04%p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 1]과 마찬가지로 [모형 2]에서도 상수,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간부족감에 대한 연령과 종사상 지위(자영업주)의 영향력은 사라졌고, 조사요일(주말)은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조사요일이 평일인 경우보다 주말일 때 시간부족감 수준이 더 높았다. 사람들은 평일인 경우보다 주말일 때 오히려 더 바쁘고 시간 부족을 많이 느낀다는 일부 논의와 부합하는 결과였다(Bianchi, Robinson, & Milike, 2006; 김원인, 2007).

또한, [모형 2]에서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를 새롭게 투입한 결과, 일하는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감은 증가하였다. 일하는 시간이 시간부족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라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Beaujot, & Andersen, 2007; Lippe, 2007).

정기휴일이 없는 경우는 정기휴일이 있는 경우보다 시간부족감이 높았다. 주휴무제에 따른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을 분석한 이종희 외(2002)에 의하면, 일하는 기혼여성 중 수시 휴무자나 기타 휴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이 주1회 휴무, 주2회 휴무, 격주 휴무 등 정기휴일이 있는 근로자의 여가시간보다 짧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기휴일과 취업모의 시간부족감 간의 관계 역시 이종희 외(2002)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모형 2]에서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를 새로 투입하였을 때, 시간부족감에 대한 종사상 지위(자영업주)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차이점으로 언급하였던 요인들 중 일하는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임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적 특성이 개인의 시간 사용 및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일-가족 양립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나 보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며,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매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취업모로서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334명의 668개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기혼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연령이 높은 대신 교육수준은 낮고 월평균 개인소득은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의 인적 자본 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평일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비교해본 결과, 기혼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짧은 대신, 가족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고용된 일 및 자영업),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가정 관리(음식 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가족 보살피기

와 관련된 시간 사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영업주의 경우 일보다는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연구결과는, 효과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한다는 기존의 논의와 부합하였다.

셋째,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주말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본 결과, 어떠한 항목에서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주말에 일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높았다. 비록 평일에는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지만, 주말에는 자영업주가 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자영업주는 정해진 휴일이 없거나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넷째,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 종사상 지위(자영업주)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취업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일 때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시간부족감 수준이 더 높았으며, 미취학 자녀수가 1명인 사람보다 2명 이상인 사람은 시간부족감을 오히려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가 더 높은 수준의 시간부족감을 느꼈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종사상 지위가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으로의 진출이 수월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실제로는 많은 기혼여성 자영업주들이 임금근로자보다 시간 부족을 훨씬 더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직업적 특성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라는 변수를 새로이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 미취학 자

녀수(2명 이상), 조사요일, 일하는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교육수준과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의 영향력은 위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조사요일이 평일일 때보다 주말일 때,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이 높았다. 또한, 새로운 독립변수로 투입한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감은 증가하였고, 정기휴일이 없는 경우는 정기휴일이 있는 경우보다 시간부족감 수준이 높았다.

그런데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시간부족감에 대한 종사상 지위(자영업주)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휴일 없이 일하는 자영업의 특성이 종사상 지위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주는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특징 때문에 일과 가족돌봄 등에 사용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여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여성 자영업주들은 절반 이상이 숙박 및 음식점업(23.12%), 도매 및 소매업(21.53%), 교육 서비스업(10.48%) 등에 종사하고 있어(서울특별시, 2012), 정기적인 휴일이 없는 채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시간 활용의 어려움을 느끼고 시간 부족 현상도 심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에 초점을 맞춰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보았으므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가족 양립 정책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것이다.

첫째, 취업모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기존의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못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취업모 중에서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는 근무특성이 다르고, 기혼여성 자영업주들도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기적인 휴일 없이 일하고 주말 근무 비율도 높은 기혼여성 자영업주를 위해,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이용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 활용이 어려운 자영업주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2006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전춘애, 이종남, 방한별, 2009). 더불어 시간부족감에 대한 일하는 시간의 영향력을 통해, 임금근로자를 위한, 근무시간의 단축 및 시간적 융통성을 높이는 기존의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객관적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 사용 인식인 시간부족감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취업모의 직업적 특성이 시간 사용과 그에 대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간 사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은 우울, 스트레스 및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주관적인 시간 사용 인식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직종이나 업종,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 임금근로자는 직종별(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시간 부족을 다르게 느끼고(차승은, 2011), 업종별 자영업주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으며(이삼식, 2013),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고, 직무 스트레스도 높다(임진석, 이형직, 정세정, 2008)는 사실을 통해, 취



업모의 직종, 업종 및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자 중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는 약 5: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의 노동시장 내 임금근로자(74.7%)와 자영업주(15.2%)의 비율과 유사하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자영업주의 시간일지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해,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주행동 뿐만 아니라 동시행동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녀를 돌보면서 동시에 일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김효정, 2004). 만약 후속 연구에서 취업모의 동시행동을 분석한다면, 그들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대해 더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 조준모(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23, 81-107.
- 김난주(2012). 한국과 미국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대 분석: Time Use Survey를 통한 비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복순(2011). 자영업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노동리뷰, 79, 7-18.
- 김영선, 옥선화(2005).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갈등 및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223-239.
- 김영옥, 이선행, 김민수(2012).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외숙(2012).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유형별 특성과 유형 결정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33-152.
- 김우영, 김응규(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3), 29-54.
- 김원인(2007). 여가론. 경기: 학문사.
- 김정석(2005). 한국 중년 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3-201.
- 김주희(2012).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칠순, 이진화(2006). 소비자의 시간압박 수준에 따른 패션정보원, 추구혜택, 구매기준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 20-30.
- 김효정(2004).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2), 99-116.

- 남수정, 유현정(2006). 취업주부의 시장소득에 따른 생활시간 분석. 한국 생활과학회지, 15(6), 985-997
- 노혜진, 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 두경자(1995). 기혼여성(가사전담 전일제근무 취업주부와 완전자력 전업 주부)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한·미·일 비교. 사회과학연구, 7, 297-320.
- 문숙재,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시간, 에너지, 금전, 심리적 취업비용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와의 비교를 통한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73-88.
- 문숙재, 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 문영주(2013).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에 관한 연구: 일-가족양립의 긍정적 전이, 비대칭성, 차별적 기능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81-102.
- 문유경(2002).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한국인구학, 25(2), 69-106.
-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2), 37-71.
- 박영미, 김기옥(1994). 주부의 시간압박감에 따른 소비자행동: 시간절약형내구재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94. 12), 229-238.
- 박은정, 이성립(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 박종서, 이상영, 이삼식, 손창균, 신현웅, 정홍원, 박수지, 신화연, 김지연, 윤여원, 이소정, 홍인정(2012). 저출산 고령화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지영(2013). 가속화 사회의 시간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석(2011). 서울시 자영업: 특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리포트.
- 배화숙(2010).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분석. 사회복지정책, 37(2), 325-344.
-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통계.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1), 161-182.
- 성지미(2011). 자영업 선택과 성과간의 관계. 노동정책연구, 11(3), 53-80.
- 성지미·안주엽(2002).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2(3), 101-136.
- 손문금(2004).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time famine) 인식. 여성연구, 2, 159-198.
- 손문금(2010). 서울시민의 이동행동에 있어서의 젠더차이: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1), 1-25.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4.
- 유소이, 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13(3), 53-68.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이삼식(2013).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

- 림, 194, 34-47.
- 이승미, 이기영(1990). 주부가 지각한 시간 제약과 가사노동 수행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23-136.
- 이승미, 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6.
- 이영환, 이수재(2007).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19-25.
- 이정의, 정형옥, 이사라(2012). 경기도 영세자영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 및 정책 지원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이종희, 이연숙(2002).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65-177.
- 장연주, 이기영, 최현자(2011).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95-211.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전춘애, 이종남, 방한별(2009). 가정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 거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225-237.
- 정순희, 김현정(2002). 시간제약 소비자의 쇼핑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15-29.
- 조동훈(2013). 자영업 결정요인 국제 비교 분석: 산업과 가족구조 효과. 산업관계연구, 23(2), 127-146.
-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1-14.

- 진미정, 성미애(2012). 직장 유형에 따른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지각: 가족친화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3-24.
- 차성란(2006). 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종사상지위별 자녀돌보기 시간 사용과 유료 자녀양육서비스 선택. 한국생활과학회지, 15(3), 373-384.
-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차승은(2011).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 1999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자료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131-151.
- 채로,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최강식, 정진욱, 정진화(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135-156.
- 최문경, 구혜란(2008). 여성과 자영업: 제한된 합리성?. 한국사회학회 2008년 전기 사회학대회 학술발표자료.
- 최문경, 이명진(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1), 21-51.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개요.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지숙, 유계숙(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축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43-166.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94. 12), 90-105.
- 허수연(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홍성희(2000). 기혼취업여성의 취업특성과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자영업

- 자와 봉급생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43-156.
- 황희숙, 김윤재, 박정우(201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관련한 사회변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7(3), 181-190.
- Beaujot, R., & Andersen, R.(2007). Time Crunch: Impact of Time Spent in Paid and Unpaid Work, and its Division in Familie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32(3), 295-315.
- Carr, D.(1996). Two paths to self-employment? Women's and men's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1980. *Work and Occupations*, 23(1), 26-53.
- Daly, K. J.(1996). *Families and Time: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California: Sage.
- Drewnowshi, J.(1976).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Poverty*. Hague: Institute of Social Studies., 노혜진, 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에서 재인용.
- Fox, K. D., & Nickols, S. Y.(1983). The Time Crunch: Wife's Employment and Family 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4(1), 61-82.
- Garhammer, M.(2002). Pace of Life and Enjoyment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3), 217-256.
- Lippe, T.(2007). Dutch Workers and Time Pressure: Household and Workplace Characteristics. *Work, Employment & Society*, 21(4), 693-711.
- Matingly, M. J., & Sayer, L. C.(2006).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5-221.
- McManus, P. A.(2001). Women's Participation in Self-Employment in Western Industrialized Nations. *Sociology of Education*, 69, 49-65.
- Milkie, M. A., Mattingly, M. J., Nomaguchi, K. M., Bianchi, S. M., &

- Robinson, J. P.(2004). The Time Squeeze: Parental Statuse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Aug 2004), 739-761.
- Moen, P. & Roehling, P.(2005). *The career mystique: Cracks in the American dream*.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OECD(2012). *Factbook*.
- Parasuraman, S., & Simmers, C. A.(2001). Type of Employment, Work-Family Conflict and Well-being: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551-568.
- Robinson, J., & Godbey, G.(1999).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Roxburgh, S.(2004). 'There Just Aren't Enough Hours in the Day':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 of Time Press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June), 115-131.
- Schor, J.(1991).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Szollos, A.(2009). Toward a Psychology of Chronic Time Pressu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Review. *Time & Society*, 18(2/3), 332-350.에서 재인용.
- Szollos, A.(2009). Toward a Psychology of Chronic Time Pressu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Review. *Time & Society*, 18(2/3), 332-350.
- Teuchmann, K., Totterdell, P., & Parker, S. K.(1999). Rushed, Unhappy, and Drained: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ime Pressure, Perceived control, Mood, and Emotional Exhaustion in a Group Accountant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4(1), 37-54.



Zuzanek, J.(2004). *Work, Leisure, Time-Pressure and Stress. Work and Leis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부록 1] 2009년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I

가구관련사항

가구를 대표하는 한 분만 기입해 주십시오.

1 귀 먹은 어떤 종류입니까?

- 1 단독주택
- 2 아파트
- 3 연립주택
- 4 다세대 주택
- 5 기타

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기집입니까, 셋집입니까?

- 1 자기 집
- 2 전세
- 3 월세, 사글세, 보증부 월세
- 4 무상주택, 사택

한 문 설명

- 자 기 집 : 실제 가구주 또는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 전 세 : 임대기간동안 집주인에게 이자없이 일정금액을 맡겼다가 이사할 때 되돌려 받는 형태
- 월 세 : 보증금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
- 사 글 세 : 집주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그 금액에서 정해진 월세를 공제하는 형태
- 보 증 부 월 세 : 집주인에게 주택임대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임대기간동안 이자없이 맡기고 일부는 월세로 매월 지불하는 형태
- 무 상 주 택 : 주택임대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는 형태
- 사 택 : 관공서나 회사소유의 주택으로 관리비 정도의 실비만을 내고 사는 형태

3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용 면적은 얼마입니까?

m<sup>2</sup>

- m<sup>2</sup>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1평=3.3m<sup>2</sup>)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기입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평형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만10세 이상 가구원영력 1999년 3월 10일, 음력 1999년 1월 23일까지 출생자는 가입해 주십시오.

**5 현재 학력을 기준으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4년제 미만)

5 대학교(4년제 이상)

6 대학원 석사과정

7 대학원 박사과정

}

1 졸업

2 재학

3 수료

4 휴학

5 중퇴

**6 미취학자녀가 있습니까?**

1 예 → (     )명

2 아니오

7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예, 항상

2 예, 가끔

3 아니오, 거의

4 아니오, 전혀

→

→

7-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것 하나에 ○표 주십시오)**

1 일(학습) 때문에

2 자녀 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3 시간관리를 잘 못해서

4 교세 및 사회활동 때문에

5 이동 시간이 많이 걸려서

6 기 타 ( )

8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지난 1주간(면접조사일 전날까지의 지난 7일간)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9**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습니까?

1. 일을 했음  
2. 일을 하지 않았음 → 17 항목으로

- 「일을 했음」이란 수입이 되는 일을 조금 (1시간 이상)이라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일시휴직자, 아르바이트 포함
- 무급가족 종사비면(정한 보수없이 자가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포함

**10** 지난 1주간 주된 일(주업) 외에 수입이 되는 다른 일(부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11** 지난 1주간 주업과 부업으로 각각 몇 시간 일하십니까?

1. 주업 :    시간  
2. 부업 :    시간

- 지난 1주간 실제로 일한 시간을 「주업」과 「부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주된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일도 동시에 할 때, 부수적인 일을 「부업」이라 합니다.
- 점심·저녁식사, 휴식, 통근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하고 일과 관련된 초과근무시간은 포함합니다.
- 업무시간 중 사적인 일을 한 시간은 제외됩니다.
- 30분 이상은 반올림하여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무급가족종관련 일은 포함하나, 집안일(가사)이나 무보수 봉사활동 등에 종사한 시간은 제외됩니다.

**12**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

- 직장·사업체명 ( )
- 주된 사업 내용 ( )

**13** 무슨 일을 하십니까? ☐

-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
- 부서 및 직책 ( )

**14** 직장(업)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자 { ① 전일제 근로      2. 고용주  
                                ② 시간제 근로  
3. 자영자      4. 무급가족종사자

**한 문 성 명**

- 임금근로자  
국가, 공공기관 및 단체, 회사, 민간기업, 사회복지단체, 교회 조합 또는 기타 비영리기관 등에서 일하고 그 댓가로 임금, 봉급, 연봉, 인당 봉사로, 상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는 사람을 말하며 직위와는 관계 없음  
- 전일제 근로 : 직장(업)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하는 근로 (경영, 공장의 작업제, 교대제도 포함)  
- 시간제 근로 : 직장(업)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타르타임, 아르바이트 등)
- 고용주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자영자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자 또는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무급가족종사자  
일정한 보수없이 자가가족(동일가구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 15 정기적으로 쉬는 날은 며칠입니까?

- |                      |             |
|----------------------|-------------|
| 1 일주일에 하루            | 2 토요일 격주 휴무 |
| 3 일주일에 이틀 (주 5일제 근무) | 4 매 2주에 하루만 |
| 5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쉬    | 6 기 타 ( )   |

### 참고 설명

- 일주일에 하루 : 토요일은 요일만 근무하고 일요일에 쉬는 경우도 포함
- 토요일 격주 휴무 : 매 2주마다 주말 쉬는 경우
- 일주일에 이틀 : 주 5일제 근무하는 경우
- 매 2주에 하루만 : 일주일에 하루를 매 2주 단위로 쉬는 경우
- 정해진 휴일이 수시로 쉬 : 아르바이트종사자, 자영업, 인용근로자 등 정해진 휴일이 따로 없는 경우
- 기타 : 정기적으로 쉬는 날은 있으나 1 ~ 4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격일 근무하는 경우 등

## 16 평소 업무가 끝난 후에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 |           |           |
|-----------|-----------|
| 1 예, 항상   | →         |
| 2 예, 가끔   |           |
| 3 아니오, 거의 | → 17 항목으로 |
| 4 아니오, 전혀 |           |

### 16-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것 하나에 ○표 해 주십시오)

- |                       |
|-----------------------|
| 1 업무량이 많아서            |
| 2 일이 힘들어서             |
| 3 근무여건(시설, 환경 등)이 나빠서 |
| 4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
| 5 건강이 좋지 않아서          |
| 6 기 타 ( )             |

## 17 귀하의 개인 월평균 소득(세금 공제 전)은 얼마입니까?

- |                    |                     |
|--------------------|---------------------|
| 1 없음               | 2 50만원 미만           |
| 3 50만원 ~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 150만원 미만  |
| 5 150만원 ~ 200만원 미만 | 6 200만원 ~ 250만원 미만  |
| 7 250만원 ~ 300만원 미만 | 8 300만원 ~ 350만원 미만  |
| 9 350만원 ~ 400만원 미만 | 10 400만원 ~ 500만원 미만 |
| 11 500만원 이상        |                     |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난 1년동안(2008. 3. 31. ~ 2009. 2. 28.)의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 구간의 번호에 ○표합니다.

개인관련사항이 끝냄으로써 4쪽 '시간일지'로 가십시오.

시간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① 10분단위로 일기 쓰듯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 10분내에 여러 가지 행동을 연속해서 했다면, 가장 긴 행동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기입합니다.
- ▶ 같은 행동을 10분 이상 계속 했다면, 시작한 시간의 기입칸에만 행동을 기입하고, 끝난 시간까지는 화살표시(↓)를 해 주십시오.

②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했다면,

- ▶ 주로 한 행동을 「주행동」칸에 기입하고, 그외 부차적인 행동을 「동시행동」칸에 기입합니다.

예)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시청했다면,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주행동"으로 다른 하나를 "동시행동"으로 나누어 적다 기입합니다.

③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무엇으로) 이동했는지도 기입합니다. (예: 엘리베이터 이용)
- ▶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는 이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던지도 기입합니다. (예: 정보 검색위한 인터넷사용)
- ▶ 함께한 사람은 "주행동"을 당신이 아는 누군가와 같이 했느냐?를 의미합니다. (단, 불특정 다수인 군중, 모르는 사람은 제외). 함께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 기입합니다. (예: 미혼남자 3명과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함께한 사람은 배우자, 미혼남자 2명) ②와 ③에 모두 체크

< 맞벌이 부부인 진경, 진영이 엄마의 예 >

첫째날 저녁 8시 ~ 밤 11시

(※)			주로 무엇을 했나요(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누구와 (함께한 사람) 1 2 3 4 5 혼자 배우자 미혼남자 그외 가족친척 기타	어디서 집 안 인 경우(↓) 표시 해 주세요	그밖에 무엇을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주행동	함께한 사람	장소					동시 행동	시간
121			자 8시					121
122			10	↓	↓	↓	↓	122
123			20	↓	↓	↓	↓	123
124			30	↓	↓	↓	↓	124
125			40	↓	↓	↓	↓	125
126			50	↓	↓	↓	↓	126
127			9시					127
128			10	↓	↓	↓	↓	128
129			20	↓	↓	↓	↓	129
130			30	↓	↓	↓	↓	130
131			40	↓	↓	↓	↓	131
132			50	↓	↓	↓	↓	132
133			10시					133
134			10	↓	↓	↓	↓	134
135			20	↓	↓	↓	↓	135
136			30	↓	↓	↓	↓	136
137			40	↓	↓	↓	↓	137
138			50	↓	↓	↓	↓	138
			밤 11시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 둘째날

아침 6시 ~ 낮 12시

(※)		주로 무엇을 했나요(주행동)	누구와 (함께한 사람)	어디서 집 안 인 영역 [ ]	그밖에 무엇을 (동시행동)	(※)
주행동	함께한 사람	강조	1 2 3 4 5 혼자 배와 이와 사 내 /한-관	표시 해 주세요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한다면 가입해 주세요.	동시 행동
087		아침 6시				087
088		10	수면	1 2 3 4 5		088
089		20	↓	2 3 4 5		089
090		30	기상, 아침식사 준비	2 3 4 5	라디오 듣기	090
091		40	↓	2 3 4 5		091
092		50	↓	2 3 4 5		092
093		7시	진경이 깨우기	1 2 3 4 5		093
094		10	진경이 아침 먹는 것 도와주기	1 2 3 4 5		094
095		20	진경이 돌고돌비시킴(웃임하기)	1 2 3 4 5		095
096		30	신용보기	1 2 3 4 5		096
097		40	↓	2 3 4 5		097
098		50	아침식사하기(낙월, 시야바나와)	1 2 3 4 5		098
099		8시	씻기	1 2 3 4 5		099
100		10	진경이 깨우기, 상 차려주기	2 3 4 5		100
101		20	출근 준비하기	2 3 4 5		101
102		30	진경이 어린이집 보내주기(결여서)	1 2 3 4 5		102
103		40	출근하기(결여서)	1 2 3 4 5		103
104		50	업무의 정리	2 3 4 5	차 비시기	104
105		9시	↓	2 3 4 5		105
106		10	업무	2 3 4 5		106
107		20	↓	2 3 4 5		107
108		30		2 3 4 5		108
109		40		1 2 3 4 5		109
110		50		1 2 3 4 5		110
111		10시		2 3 4 5		111
112		10	↓	2 3 4 5		112
113		20	업무관련 회의	1 2 3 4 5	차 비시기	113
114		30	↓	2 3 4 5		114
115		40		1 2 3 4 5		115
116		50		1 2 3 4 5		116
117		11시	업무	1 2 3 4 5		117
118		10	↓	2 3 4 5		118
119		20		2 3 4 5		119
120		30		2 3 4 5		120
121		40	점심 먹으러가기(구내식당)	1 2 3 4 5		121
122		50	점심식사	1 2 3 4 5		122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관입니다.

**Abstract**

**Working Mothers’  
Time Use and Time Crunch:  
A Comparison between Employed and  
Self-Employed Mothers**

Chun, Jihyu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 effects of work status on working mothers’ everyday life. There are two specific research questions: 1) Is working mothers’ time use on work and family different depending on work status? 2) Does working mothers’ work status affect time crunch? To answer these questions, data from 668 mothers were selected from the Time Use Data of 2009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ample consisted of time diaries of working mothers whose children are younger than 8 years ol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employed women spent more time on family than



employed women, but work time of self-employed women was shorter than that of employed women on days. However, higher percentage of self-employed women than employed women worked on weekends.

Second, controlling for the age,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and day of data collection, the effect of work statu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orking mothers' time crunch. Especially, self-employed women felt more time crunched than employed women.

Lastly, time used on paid work and having regular day offs had effect on working mothers' time crunch. Also, when those variables were put into analysis, the effect of work status on time crunch disappeared.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self-employment women could feel more time crunch than employed women because of working on weekends.

**Keywords : Reconciliation between Work-Family,  
Self-employment, Time Use, Time Crunch, Work Status**  
*Student Number : 2012-23562*